

이름: 김향유/ 학년, 반: 3-5/ 학번: 2017210283

「한국교회사Ⅲ」 제13, 23장 / 읽은 시간: 3시간

1. 저자가 말하는 근대복음주의 운동과 한국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예장합동(개혁파 장로교전통과 복음주의 유산)이란 무엇인가?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는 20세기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들에 의해 더욱 확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발흥한 신앙운동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소중한 개신교 전통과 신앙을 계승하려는 신앙사조를 일컬어 사용하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히 한국복음주의 운동은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바른 신학은 계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복음주의신앙고백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 5항에 잘 기록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전도화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처럼 로잔언약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문화시킴으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한국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사회정의 문제가 복음전파와 분리될 수 없다는 로잔언약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복음전파와 사회정의 구현은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복음전파를 위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으며, 복음전파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힘을 증가시키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은 전체적이므로 영혼구원 못지않게 정의로운 환경에서의 보람 있고 인간다운 삶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이 자체의 사회윤리를 개발하여 그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복음주의의 양보가 아니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 운동은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균형과 활발한 노력을 통해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장로교 전통 신학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1)성경무오, 2)해외선교, 3)제자운동. 이 세 가지가 밑거름이 되어 마지막 4)한국교회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복음의 순수성, 복음전파,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복음주의 신앙의 유산을 오늘날 우리에게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장로교 예장합동은 개혁파 장로교 전통과 복음주의 유산을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개혁주의는 교리(Doctrine), 경건(piety), 문화(culture),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야 함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장로교전통과 복음주의신앙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필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면서 3년 동안 개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수님들을 통해 많이 배웠다. 특별히 한국기독교회사 수업을 통해 배우는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주의신앙고백은 우리 신앙의 유산과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복음주의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총신 안에서 신학을 배울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다. 그렇다면 총신은 어떠한 개혁주의 전통과 복음주의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첫째, 총신은 성경의 완전무오 사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고, 완전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정확무오한 언어로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또한 성령께서 성경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바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총신의 개혁주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총신은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적 특성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한국 장로교 칼빈주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구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써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인 종교개혁 전통의 구원관을 따른다. 총신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확인한다. 넷째, 우리의 교회관은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복음전파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신학의 실제적 특징인 적극적 문화관과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저자도 강조하듯이 이 점은 특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했듯이 문화적, 사회적 봉사 책임을 언급한 것은 한편으로 박형룡이 제시한 청교도개혁주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청교도 운동에서 중시하는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신은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근본주의나 신근본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과 사회와 문화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근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다르게 일반은총과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나야 하며, 영역주권 사상을 따라 우리의 신앙고백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신앙고백은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다시 성경적 복음주의 신앙으로 깨어져야 한다. 이미 세속화된 교회가 사회적인 현실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 선포에 멈추지 않고 사회화 문화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추구하며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간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